p/21

22일 만에…'열차' 다시 달린다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조건 파업 철회…노조 "오늘 오전 11시 일터 복귀"

'22일째'라는 사상 최장기간 파업 기록을 남긴 철도 파업이 30일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며 극적 타결됐다. <관련기사 2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무성·강석호, 민주당 박기춘·이윤석 의원은 "전날 밤 9시부터 철도노조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30일 자정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 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체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사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선 민주당은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사실상 민영화로 가는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만큼 국회 내 소위를 설치해 이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철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소위 구성 방안은 철도 파업을 끝내는 조건으로 여야와 철도노조가 전격 합의함으로써 성사됐다.

소위는 여야 4인씩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31일 오전 첫 회의를 한다.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았고, 새누리당에서 박상은·윤호중·이이재 의원이 위원으로 낙점됐다. 야당에서는 민주당 이윤석·민홍철·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내부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며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 전 노조원들은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더라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인력 선발도 진행 중이어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코레일 측 역시 "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 합의 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뿐 아직 아무런 진척 상황이 없다. 여야 합의에 따른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다음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 소식을 전한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 대응을 질책하는 의견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새해엔 왕만 보고 '뚜벅뚜벅' 2014년 갑오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의 보신각 타종 행사, 경포전 해맞이 축제 등 지역별로 새해를 맞이하는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2014 해맞이 축제'에 참가하는 가수와 말이 30일 오후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은 스마트폰 끄는 날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안녕들 하셨습니까"

전국을 대자보 열풍으로 물든 '안녕들 하십니까' 문구도 이제 새해를 맞아 과거형으로 바뀔 순간을 맞이했다.

2013년은 최첨단 스마트 기기가 범람한 한 해였다. 전세계 1000만대 판매 기록을 세운 '갤럭시 S4', 세계 최초의 일체형 금속 테두리를 구현한 '베가 아이언', 휘어지는 스마트폰 'G플렉스'와 '갤럭시 라운드', 손목형 스마트폰 '갤럭시기어'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시까지 눈이 휘둥그레지는 제품들의 향연이었다. 세계 최초 LTE-A 개통, 카카오톡 PC 버전 출시, 라인 전세계 이용자 3억명 돌파 등 IT 서비스 분야에도 다렌 소식이 줄비했다.

물리적 환경은 편리해졌지만 삶의 질도 안녕해졌을까. 직장인에게 스마트 기기는 필요악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실시간으로 울리는 메시지 알람, 메일 송수신 체크는 365일 24시간을 업무 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날로 치솟는 통신 요금제, 고가의 스마트 기기도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다.

요즘 카페에 가면 서로의 얼굴 대신 스마트폰만 보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코 앞에 앉아 있는데도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기괴한 풍경도 벌어진다.

스마트 기기를 잠시 끄고 가족과 마주보는 시간은 갖자. 바쁘다는 이유로 액정 화면과 전화 통화음으로만 얼굴과 목소리를 확인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우리의 안녕한 2013년 마지막 날을 위해.

'철도발전소위' 구성 일사천리 합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승용(오른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뉴시스

완전정상화 이틀 걸릴듯

철도파업 철회했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 노조 간부 징계 등 갈등 불보듯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철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노조원의 복귀 시기를 결정할 내부 절차를 밟고 있고, 실제 노조원들이 근무지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문제 등 껄끄러운 문제도 남아있다.

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490여 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 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위는 내년 1월 2일 열리고, 파업을 …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 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 코레일은 26일 서울 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친 116억원이다. 사측은 파업이 끝나면 손실액을 다시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 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도 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철도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기관사의 95.3%가 파업을 벌여온 것도 문제다. 이들은 열차 운행의 핵심 인력으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7641명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백이 생겼던 차량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파업 철회 후 열차 운행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 24시간, 최대 48시간이 걸렸다"며 "파업 철회가 결정된 만큼 노조원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독려, 최대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민기자 minkim@metroseoul.co.kr

일부 온라인몰 '택배비 마진' 챙겨

국내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는 일부 대형 온라인몰 업체들이 택배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건당 택배비를 깎은 후에도 소비자들로부터는 공인 택배비를 그대로 받아 챙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문제연구소컨슈머리서치가 신세계몰을 비롯해 롯데닷컴, G마켓, 11번가, GS샵, CJ몰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400여 개 상품의 택배비를 조사한 결과, 중량과 부피가 큰 가구·가전, 식기세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배송비가 2000~4000원까지 다양하며 이 중 2500원 구간이 가장 많아 전체의 53.2%(208개 상품)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처럼 쇼핑몰들에서 소비자들로부터 2500원가량의 택배비를 받지만 발송 건수가 월 2000건이 넘어가는 대형 쇼핑몰들은 택배사 간 물량 유치 경쟁으로 배송료를 1600~1900원으로 내려 지불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결국 소비자들은 정식 택배비를 지불하지만 판매업체는 건당 600~900원의 차액을 남기는 것이다. 또 월 발송 건수가 700~1000건인 경우 실제 배송비는 건당 2000~2200원으로 떨어져 300~500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김현정기자 pnmo@

소득세 최고구간 1억5천↓

여야가 소득세 최고 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과표 기준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하겠다는 협상카드를 제시하자 과표 기준을 5000만원 더 내리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 뉴스

김관진 "파병부대 탄약 보유기준 재검토"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0일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 측으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병부대의 탄약 휴대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기준에 따른 것이었지만 파병시에는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강 낚시금지구역 새해부터 2곳 추가

● 내년 이촌한강대교와 한양천 합류부~마곡철교 하류 2곳이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추가된다.

30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단속하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 평가 순위 16위의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 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채권단의 추가 지원 결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31일 100억여 원의 어음과 60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대출)이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용건설은 법정관리가 지연되면 협력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국내외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해외 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조속한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번욱기자

텔레마케팅 공해 거부 가능해진다

무분별하게 이용돼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전화 권유 판매(텔레마케팅)를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지 않게 하려면 등록 사이트(www.donotcall.go.kr)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해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거부 의사를 등록했는데도 광고성 전화가 온다면 등록 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 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화 권유 판매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 시스템의 수신 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월 1회 이상 수신 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전화 권유 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서정매기자 pnmo@

'공무원 신랑' '교사 아내'가 최고

장래 배우자 '이상적 직업'

미혼 남녀들이 장래 배우자의 이상적인 직업으로 공무원과 교사를 꼽았다.

30일 한 결혼정보회사가 20~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조사해 분석한 '2013년 이상적 배우자상'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13.6%가 공무원·공사 직원을 꼽아 10년 연속 1위를 지지했다.

이어 일반 사무직(8.6%), 금융직(7.8%), 교사(6.8%), 의사(6.7%) 순이었다.

남성은 교사(12.9%)를 1위로 꼽았다. 공무원·공사 직원(11.8%), 일반 사무직(10.4%), 약사(6.1%), 금융직(5.7%)이 뒤를 이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남녀 모두 성격(남 37%·여 34.9%)이었다. 이어 남성은 여성의 외모(19.6%),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21.2%)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상적인 배우자의 연소득 평균값은 남성 5083만원·여성 3911만원, 평균 자산 규모는 남성 2억4613만원·여성 1억5583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조현정기자

전주 얼굴없는 천사 올해도 어김없이 30일 오후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뒷편 화단에 '얼굴 없는 천사'가 5만원권 다발과 동전이 가득한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기부해 주민센터 직원들이 돈을 세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2000년부터 시작돼 14년째 선금을 기부했다. /뉴시스

응답하라! 사라진 중산층

20년새 7.14%P나 감소 저소득층 4.9%P·고소득층 2.23%P 늘어나

국내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종욱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산층은 1990년 74.47%에서 2000년 70.87%, 2010년 67.33%로 감소했다.

이는 20년 새 7.14%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거나 고소득층으로 상승하는 등 인근 계층으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저소득층 규모는 1990년 7.34%에서 2010년 12.24%로 4.9%포인트, 고소득층 규모도 18.2%에서 2010년 20.43%로 2.23%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함께 소득 계층별 가구주 연령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9.32%에서 2000년 30.86%, 2010년에는 15.71%로 떨어졌다. 반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1990년 7.95%에 불과하던 60대 이상의 저소득층 비중은 2000년 24.39%, 2010년 40.57%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 계층에서 근로자(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자영자(고용주, 자영업주 등)의 비중은 대폭 감소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주 특별한 서커스 30일 서울 당산동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사랑의 문화나눔 특별 프로그램-동춘서커스'에서 곡예사들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산은 부산지점 성금 350만원
KDB산업은행 부산지점(부산지점장 김한호-왼쪽)은 지난 27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장호·오른쪽)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3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산업은행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으로 부산지역 노숙인무료급식소의 온풍기 설치를 위해 사용된다.

김인세 전 부산대학교 총장 뇌물수수로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인세(66) 전 부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을 제외한 수표는 총장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뇌물로 판단한 다음 공소사실을 모두 포괄일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진구 음주 청정지역 선포 상인들 "취지 공감하지만 …"

유흥가가 몰려있는 부산의 한 지자체가 음주 행위·주류 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관내 공원이나 길거리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잘못된 음주 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는 내년 2월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노상 음주 행위 등이 빈번한 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선정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위반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를 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절주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뜻에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송상현광장, 부산진구 도시공원, 서면문화로, 서면특화거리(주디스태화백화점 인근) 등 4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음주청정지역에 주류판매점이 몰려있는 서면특화거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상인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서면특화거리 발전위원회 박명주 부회장은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잘못된 음주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주류 판매 상가가 몰린 서면특화거리까지 대상 지역으로 포함함으로써 구가 상권 죽이기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다대포에 민속예술관 생긴다

시, 다대소방파출소 건물 리모델링 상반기 건립… 지상 2층 규모

부산 다대포에 무형문화재 민속예술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상시 공연을 통한 선통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사하구 다대동로 12에 위치한 옛 다대포소방파출소 건물을 '다대포민속예술관(가칭)'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할 공간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부산에는 동래구의 부산민속예술관, 수영구의 수영고적민속예술관, 서구의 구덕민속예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하구 지역에는 민속예술관이 없어 다대포후리소리보존회의 회원들은 인근 공터나 바닷가 등을 찾아다니면서 연습하는 등 보존 전승 활동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대포후리소리보존회 회원들은 올해 제42회 부산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산시는 올해 옛 다대소방파출소 119안전센터(5억원 상당) 건물에 대해 공유재산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예비 2억7000만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후 무형문화재 등 민속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하 다대지역 민속예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민속예술관은 지상 2층, 연면적 337㎡에 연습실과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민속예술관은 개관 후 민속예술보존협회 등이 위탁받아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다대포후리소리'는 다대포 해변가에서 이어지온 멸치잡이 후리질과 어구 및 작업의 방법을 재현·보존하고 있어 민속의 음악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시스

지역 민주 원로 "아베, 야스쿠니 참배 사과하라" 부산지역 민주 원로 12명은 30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관광호텔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아베 정권은 야스쿠니 참배를 사과하고 그릇된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의 망상을 버려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등급이상 한우 반값 판매

부산지역 유통업체들이 갑오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하는 등 신년 마케팅이 벌써부터 뜨겁다.

30일 메가마트 측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 단 하루 '1등급 이상 한우 전품목'을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한편 메가마트 남천점은 1월 1일 광안대교 해맞이 행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임시 연장 영업(12월 31일 자정~1월 1일 자정)에 들어간다.

당일에 한해 주차장 개방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해맞이 행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오전 6시부터 광안대교 상층에서 따뜻한 커피 1만2000명분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타종식' 도시철도 28회 증편

해넘이·해맞이 교통대책

부산시는 "2014년 해맞이 부산축제"를 앞두고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해맞이 부산축제는 31일 밤 11시부터 1시간30분간 용두산공원에서 열리는 '시민의 종 타종식'과 새해 첫날 오전 6시30분~8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갑오년 해맞이'를 펼칠 계획이다.

또 송정해수욕장, 해월정, 기장 일광 일원에서도 크고 작은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시는 시민의 종 타종식에는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해맞이 명소로 꼽히는 해운대·송정·기장 등의 해맞이 행사장에는 3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의 종 타종식 행사장 주변은 오는 31일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30분까지 용두산공원 입구(근대역사관→중앙천주교 앞→한국은행 점문)와 광복로(근대역사관→광복로→창선치안센터) 일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제한한다.

해맞이 행사 명소로 꼽히는 광안대교는 새해 1일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상층부 도로만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오전 6시~9시 광안대교 상층 보행로를 개방해 시민들이 해맞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정해수욕장 해변로와 송정방파제삼거리~광어골 더블사도(1.1km), 송정관광안내소~송정초등학교 앞(0.4km) 구간은 1일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방통행으로 운영된다.

이날 해당 지역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송정방파제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광안대교 전면 교통 통제로 인해 올림픽교차로와 수영1호교, 민락교 등에 차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송정~기장·일광 일원의 해맞이 귀가 차량이 기장~반송, 윗내~장관 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증편 및 연장 운행을 통한 관람객 특별수송대책도 실시된다.

시민의 종 타종식 행사와 관련해 31일 도시철도 1~4호선을 28회 증편해 운행하고 남포동(국제시장) 경유 시내버스 34개 노선(641대) 중 9개 노선 44대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숙박·식사 특가에 즐기고 해운대 일출도 감상하세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어느 멋진 날' 프로모션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설 연휴를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숙박부터 식사까지 특가로 즐길 수 있는 '어느 멋진 날(One Fine Day)'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홈페이지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단 15일간 판매되는 특가 프로모션 상품으로 해운대 바다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 레벨 전망 객실 1박과 뷔페 레스토랑 까밀리아 2인 석식,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2인 조식, 온천사우나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35만~42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이는 시즌 패키지 대비 11만4000~13만4000원 낮은 가격이라 보다 여유롭게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객실 내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를 통한 모닝 커피 2잔 술 제공,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시 10% 할인, 체련장·수영장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간단한 안주와 칵테일, 맥주, 와인 등을 즐길 수 있는 해피아워와 조각 케이크, 쿠키, 샌드위치, 과일 등을 즐길 수 있는 티타임 스낵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객실 내 24시간 데스크톱과 인터넷 이용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상세 내용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홈페이지(http://twcb.echosunhote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약 및 문의 (051)749-7001 /정혜균기자

고드름 얼음길 30일 부산 남구 신암호수공원에 만들어진 인공 고드름 사이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겨울 정취를 느끼고 있다. /뉴시스

레디고 끊이지않는 부산

지역 무대 촬영 영화·영상 78편…올로케 비중 높아져

올해 부산을 무대로 촬영한 영화·영상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특히 올로케이션 촬영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영상위원회는 2013년 부산지역 영화·영상물 촬영 지원 실적은 장편 극영화 24편, 드라마·CF 등 영상물 54편 등 모두 78편에 촬영 기간은 720일(연일수)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61편(장편 극영화 24편, 영상물 37편), 698일 촬영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촬영 편수는 17편(27%), 촬영 일수는 22일(3%)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장편영화 촬영만 따로 비교하면 촬영 작품 수는 지난해와 같은 24편이지만 촬영 일수는 514일로 지난해 382일에 비해 35%(132일) 늘어났다. 이는 규모가 큰 영화의 부산 올로케이션 촬영이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깡철이' '친구2' '국제시장'이 부산에서 장기간 촬영됐고, '소원' '변호인' '캐니 힐의 기억' 등 10여 편은 부산에서 15회 이상 촬영을 한 작품들이다.

전체적으로 부산 로케이션 촬영이 늘어난 것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올해 처음 시행한 제작진 숙소지원 사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드라마·CF 등 영상물은 촬영 일수는 줄었지만 작품 편수가 대폭 늘어나는 역전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316일 동안 37편을 촬영했으나 올해는 206일 동안 54편을 촬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해운대 연인들' '골든타임'이 부산에서 장기 촬영한 탓에 촬영 일수가 예년보다 많았다면 올해는 CF 등 촬영 기간이 짧은 작품 촬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부산의 경관 등 인프라가 광고나 기타 방송물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위첸 '예감', 스프라이트, '카스 라이트', 쉐보레 캡티바 등 15편의 CF가 부산에서 촬영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영상위원회 한 관계자는 "부산은 항만과 교량, 빼어난 해안선 등 촬영 인프라가 뛰어난 데다 숙박비 촬영지원 등의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부산을 즐겨 찾고 있다"며 "영상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항 올 '컨' 처리 1760만개…역대 최다

부산항만공사(BPA)가 경기침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을 기록하는 등 올해 많은 성과를 올렸다.

먼저 부산항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인 1760만 개(약 6m짜리 컨테이너 기준)를 처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목표치인 1800만 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 각국 항만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부산항은 올해도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PA는 글로벌 선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인센티브제 개선과 수심 증설 등 선사들의 요구 사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 덕분이라고 분석됐다.

크루즈선박 입항 실적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부산항에는 크루즈선박이 99차례 입항했다. 크루즈 승객만 19만 6000명이었다. BPA는 크루즈선박 입항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1580억원 정도로 분석했다.

내년에는 부산항에 크루즈선박이 143차례 입항, 25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BPA는 올해 10월 22일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통합운영사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서를 체결, 운영사 통합 노력의 첫 결실을 봤다. 운영사 통합이 확산되면 신항으로의 물동량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 선생-아폴로 11호… 인생·역사 보는 라이프사진전

인생과 역사에 대한 멋진 이야기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라이프사진전'이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문화방송과 공동으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라이프사진전'을 새해 1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이프지는 최고의 사진가로 평가받는 알프레드 아이젠슈타트, 윌리엄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 등이 활동했고 주간 판매량 1300만 부에 이른 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이들의 근접간 진 넘이 남긴 900만 장의 사진 중 역사적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 라이프지 최고의 사진들 13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이게 된다.

이 전시회에는 백범 김구 선생부터 마이클 잭슨, 한국전쟁에서 아폴로 11호까지 세계 근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심오한 인생의 철학을 드러내는 사진에 이르기까지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스란히 보여줄 예정이다. /뉴시스

인터넷 입소문만 믿고 집 샀다간

카페·뉴스 등 이용한 마케팅 기법 교묘해져… 혹해 덜컥 계약땐 낭패볼수도

Issue & View 재계재계

/박선옥기자 pso1920@metroseoul.co.kr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연내 최대한 많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분양업계의 막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그러나 온라인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내용이 정보를 가장한 광고·홍보인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블로그·뉴스 등 전 카테고리 활용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이 저비용 고효율 홍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명 입소문 마케팅으로 불리는 바이럴 마케팅은 그동안 음식점,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이용 후기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최근 1~2년 사이 분양 시장에도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중개업소나 분양 영업사원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뉴스, 카페, 지식인 등 포털사이트 내 모든 카테고리로 확대된 상태다. 어떤 경로로 검색을 하더라도 해당 상품 관련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의 경우 대중이 아닌 해당 정보가 필요해 검색한 사람을 타깃으로 노출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전화를 걸어 온 수요자 10명 중 7~8명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홍보글을 보고 수요자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기사 형식의 상업광고인 '인포머셜'은 분양업체가 말하고 싶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광고 기사로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위 노출 보장… 안믿어지는 온라인 여론

블로그와는 달리, 상업적 성격이 짙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카페나 지식인도 일방적인 홍보글에 넘쳐나긴 마찬가지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인 것처럼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인 양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답변을 달거나 경쟁 상품을 깎아내리는 글을 올리는 식이다.

바이럴 마케팅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업체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뉴스는 물론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에 우리가 작업한 내용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다"며 "아무래도 상위에 글이 올라가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할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갈수록 바이럴 마케팅 기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최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온라인에서는 편향적인 정보에 기초해 소비자가 기망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기만 행위나 부당 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의 경우 무분별한 광고·홍보를 제재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겠지만 수요자도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발품을 팔고, 전문가나 주변 중개업소의 얘기를 듣고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스피 2010선 회복… 1월 2일 증시 개장 2013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일인 30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직원들이 색종이를 뿌리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011.34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단기 부동자금 700조 돌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이 7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단기성 부동자금은 704조2825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성 부동자금을 유형별로 보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327조5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구불예금이 116조4142억원으로 뒤따랐다. 이어 현금이 51조3471억원, 머니마켓펀드(MMF) 47조9322억원(정부 및 비거주자 보유분 제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36조2356억원, 양도성예금증서(CD) 21조4312억원, 환매조건부채권(RP) 9조9703억원 등 순이다.

이밖에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은 78조1136억원어치에 달하고, 증권사 투자자예탁금은 15조251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현정기자 lhj@

단순 알바 미래 경쟁자는 'Mr. 로봇'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에서 로봇 일꾼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꿰차고 있다. 최근 미국 유력 매체 워싱턴포스트는 미래 로봇에게 빼앗길 8개 직업군을 소개하며 로봇과 인간의 치열한 '밥그릇 전쟁'을 예고했다.

신문은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업계 아르바이트생과 트럭 운전사, 단순 물류 운반직과 옷가게 주인, 농장 관리자 등이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햄버거 등을 데워주는 간편 조리, 창고 물건 운반, 농장 설비시설 온도 맞추기 등의 일은 로봇 인력으로 쉽게 대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과 온라인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닷컴의 로봇 프로젝트는 택배업계 직원들의 속통을 조일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달 빅독, 치타 등 4족 보행 로봇으로 유명한 '군용 로봇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다이내믹스의 기술을 이용해 '택배 로봇'을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닷컴이 201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드론(무인비행기) 택배'의 맞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제조용 로봇 수요가 급증, 2011년 127억 달러(약 13조4400만원) 규모로 성장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2011.34 (+9.06)	499.99 (+3.22)
금리	환율
2.86 (+0.03)	1053.50 (-1.00)

디지털 카운트다운 이벤트

SK플래닛이 새해를 맞아 이색적인 새해 디지털 카운트다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플래닛은 명동 보광휘닉스파크에 설치한 높이 14.8m, 둘레 9.5m의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조형물 '미디어플라워'를 통해 자정 10초 전부터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메시지가 노출되도록 연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미디어플라워는 SK플래닛이 보광휘닉스파크와 스마트 리조트 조성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설계한 조형물로 'T맵·워더풀·싸이메라' 등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구현한 신개념 미디어 플랫폼이다.

SK플래닛은 미디어플라워를 프로포즈 시 끼워주는 보석 반지로 형상화해 12월 탄생석인 터키석 영상과 1월 탄생석인 가넷 영상을 연속 상영하고 새해를 맞아 디지털 카운트다운 메시지를 노출하는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층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권영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11

[illegible]

"한국군 무기 좋아도 북한 못이긴다"
1588-3600
SUNDAY
"좌우 모두 틀 정해놓고
안 따른다고 나를 공격"
마, 마살라마"

금융연구원이 뽑은 올해 금융권 10대 뉴스

美 양적완화 축소·동양 사태 '화들짝'

올해 금융권 10대 뉴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 개시, 동양 사태와 기업어음(CP) 파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등이 선정됐다. 지난 1년간 금융권에서 울고 웃었던 뉴스들을 되짚어본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2013년 금융권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한 결과, 우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개시가 꼽혔다. 금융연구원 측은 "양적완화 축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과 환율 위험 우려가 증가했다"며 "국내 환율은 양적완화 축소 발표 이후 0.9% 절하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올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일본은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유도, 성장 전략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동양 사태와 CP 파문 역시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제기된 올해 8월 말부터 법정관리를 신청한 9월 말까지 3000억원 규모의 CP를 발행,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이 주요 뉴스로 꼽혔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분리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최근 NH농협은행이 우리투자증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올 한 해 보험사와 증권사의 인수·합병(M&A)에 활발히 이뤄졌다. LIG손해보험,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등 대형 보험사 매물이 속출했고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했다.

증권가에선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현대증권 등이 매물로 나왔다. 우리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7월에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21개 기업이 참여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출범했다. /이국명 기자

달아오른 광대역 LTE 전쟁

KT·SKT 이어 LG유플러스도 서비스 시작… 일부 "속도 경쟁 무의미"

KT,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광대역 LTE 속도 전쟁이 시작됐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받은 2.6GHz 대역 40MHz 폭을 활용해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은평구 등 인구 밀집지역과 수원, 안양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9월 KT, SK텔레콤에 이어 이통 3사가 모두 광대역 LTE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LG유플러스는 경쟁사에 비해 서비스 시점 차이만큼이나 차별화를 둬야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경쟁사가 35MHz 폭으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고 있어 다운로드 최대 150Mbps, 업로드 최대 25Mbps 속도를 제공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40MHz 폭을 할당받아 업로드에서 최대 50Mbps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LG유플러스가 31일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 제공

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광대역 LTE를 구현한 KT는 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애쓰고 있다. 또한 광대역 LTE가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는 LTE-A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구축하며 두 배 빠른 LTE 제공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광대역 LTE와 함께 LTE-A를 동시에 서비스하며 빠른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235개 지역을 평가한 결과 LTE 속도와 LTE-A 속도에서 SK텔레콤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LTE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34.5Mbps로 가장 빨랐으며, KT 30.7Mbps, LG유플러스 27.4Mbps 순으로 조사됐다. LTE-A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에서도 SK텔레콤은 56.2Mbps로 가장 높았으며 KT가 50.3Mbps, LG유플러스는 43.1Mbps에 머물렀다.

한편 일각에선 현재 LTE 속도만으로도 각종 인터넷, 모바일게임, 동영상 감상 등을 즐기는 데 큰 문제가 없어 속도 경쟁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속도 경쟁뿐 아니라 통신 사업자들이 광대역 LTE나 LTE-A 전용 콘텐츠 생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대한 대비나 데이터 맞춤형 통신요금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세계 최대 110형 UHD TV 출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크기의 110형(약 2.8m) UHD TV를 글로벌 출시하며 초대형 최고급 T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삼성의 110형 UHD TV(110S9)는 현재 상용화된 UHD TV 중 세계 최대 사이즈로 프레임을 포함해 가로 2.6m, 세로 1.8m에 달한다. 또 풀HD(Full High Definition, 200만 화소)의 4배에 달하는 UHD(Ultra High Definition, 800만 화소)의 해상도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올 펀드 수익률 해외>국내

올해 펀드 성적표는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에 압승을 거뒀다. 하반기 들어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흐름이 살아났지만 연중 내내 강세를 나타낸 미국, 일본 등 해외 증시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는 올 들어 0.72% 오르는 데 그쳤으나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연초 대비 각각 26%, 36% 상승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는 50% 넘게 치솟았다.

에프앤가이드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연초 대비 0.58% 하락했다. 대형주 위주의 K200인덱스펀드의 연초 대비 수익률도 0.31% 빠졌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중에서는 배당 주식과 중소형 주식이 각각 7.90%, 5.60% 성과를 내며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초 대비 평균 수익률이 3.18%로 국내형보다 높았다. 일본 주식형과 북미 주식형은 각각 43.46%, 32.74%로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김현정 기자 hjkim1@

날렵한 디자인 '명품' 뒤태

임청아의 차차차

■ 쉐보레 카마로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연상 주행안정성·연비 아쉬워

쉐보레 카마로를 보면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맹활약한 '범블비'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특히 노란색 카마로를 보면 '진짜 이 차가 범블비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최근 선보인 카마로 RS는 기존 모델의 매력을 살리면서 상품성은 개선한 모델이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좀 더 날렵해졌고 사이드 미러에는 LED 타입 방향지시등을 달았다. 또한 새로운 타입의 LED 테일램프로 뒤태를 새롭게 다듬었다.

실내에서는 달라진 계기판이 눈에 띈다. 특히 양쪽 계기 사이에 하이테크 컬러 정보표시(DIC)를 배치해 다양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다. 앞유리에는 다양한 컬러로 정보를 전달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펼쳐진다.

파워트레인은 [illegible] ℓ 323마력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의 궁합은 폭발적이진 않지만 충분한 힘을 보여준다. 경쟁자인 현대 제네시스 쿠페의 350마력에 비해서는 열세지만 최대 토크는 38.5kg.m로 제네시스 쿠페(40.0kg.m)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4000rpm 이상의 고회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타입이어서 저회전에서는 약간 굼뜬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주행 안정성은 약간 아쉽다. 평탄한 노면에서는 승차감이 좋지만 요철이 있는 도로에서는 흔들림이 심해진다. 18인치 휠을 적용한 머스탱이나 19인치 휠의 제네시스 쿠페에 비해 카마로는 20인치 휠을 적용해 노면에 더 민감한 탓이다.

연비는 복합 8.4km/ℓ(도심 7.2, 고속도로 10.5)로 배기량이 더 큰 제네시스 쿠페에 비해 조금씩 열세다. 제네시스 쿠페는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한 덕에 연비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

카마로의 가격은 4710만원이고 시승차인 옐로 컬러는 100만원이 추가된다. 모델 체인지를 앞둔 머스탱은 4220만원이고 제네시스 쿠페 3.8 모델은 풀옵션이 4076만원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카마로가 가장 밀린다. 따라서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춘다면 카마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외관의 카리스마는 동급 최고. 가격을 좀 더 낮추면 경쟁력이 생길 듯 ▲평점: ★★★ [illegible]

한해 되돌아 보기? 스마트폰 있잖아

한 해의 기록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려면 스마트폰을 터치해 보자.

30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한 해의 중요했던 순간들을 회고할 수 있는 '한 해 돌아보기' 기능을 서비스 중이다.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올 한 해 동안 타임라인에 게시된 포스트, 사진, 동영상 중 가장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콘텐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링크(www.facebook.com/yearinre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안드로이드용 달력 앱 '쏠캘린더'의 일정 공유 기능을 최근 [illegible]

일정 알리기 메뉴에서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선택하면 메신저 친구에게 자신이 입력한 일정이 전송되는 식이다. 여행, 모임, 경조사, 기념일 등을 지인들과 공유할 때 유용하다.

새해 인맥 관리를 위해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정리는 필수다. 각 통신사에서는 클라우드 등 이용한 가상 연락처 저장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연락처뿐 아니라 [illegible] 무료 서비스도 출시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도 이용자에게 파일 저장 및 연락처 보관용으로 각각 'N드라이브'와 '다음 클라우드'를 서비스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서울 거주 2013년 이슈와 포스팅을 선보이는 페이스북의 '한 해 돌아보기' 기능 모습 /페이스북 제공

설 차례상 비용 18만9000원… 전년보다 줄어

신년 설 차례상 비용이 과일·채소·수산물 등 제수용품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5400원가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마트에서 설 1주일 전을 기준으로 4인 가족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18만9600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5400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작은 이파리 도 과일·채소·수산물은 가격이 2~9% 내리고 축산물은 4% 이상 모든 것으로 내다봤다.

물품별로는 올해 태풍 피해를 입지 않고 작황이 좋았던 배(5개·개당 650g)와 저장 물량이 늘어난 곶감(10개)은 각각 전년보다 32%, 9% 싼 1만원 선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사과(5개·개당 340g)는 전년과 비슷한 1만4700원에, 생산량이 준 단감(5개·개당 180g)은 18% 오른 6500원에 각각 판매될 것으로 전망됐다.

채소도 산지 작황 호조와 재배면적 확대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 시금치(1단)와 애호박(1개)은 전년보다 25%가량 내린 2700원, 2500원에 각각 거래될 것으로 조사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삼성·SK하이닉스 8Gb 모바일 D램 개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0일 세계 최초로 차세대 '8기가비트(Gb) LPDDR4 모바일 D램'을 동시에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LPDDR3' 규격에 머물던 모바일 D램 시장이 또 한 번 세대 교체를 이룰 전망이다.

LPDDR(Low Power Double Data Rate)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D램 반도체로, 내년 말부터 플래그십 모바일 기기에 사용돼 2015년부터 시장이 본격화되고 2016년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8Gb LPDDR4 모바일 D램은 최첨단 2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제품으로 해당 칩 4개를 적층해 4기가바이트(GB) D램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8Gb LPDDR4 모바일 D램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하고 제덱(JEDEC)이 표준으로 확정한 LVSTL(Low Voltage Swing Terminated Logic) IO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해 기존 LPDDR3보다 2배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인 3200Mb/s를 모바일 D램 최초로 구현했다.

SK하이닉스가 새로 개발한 20나노급 8Gb LPDDR4는 시장 주력 제품인 LPDDR3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높이고 동작 전압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메트로신문이 뽑은 2013 대한민국 10대 뉴스

2013년 계사년. 올해는 흑사띠로 '검은 뱀의 해'로 불렸다. 역사적으로 흑사띠의 해에는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 해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메트로신문 뉴스면은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많았다. 이 역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기에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가감없이 정리해본다.

1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전격 처형 '충격'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성택이 지난 12월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처형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됐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으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 권력 구도의 격변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고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한 김정은이 '공포정치'에 나서 대대적인 숙청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과 동시에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기 시작하며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군의 대북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내년 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2 '갑을 논란' 불 지핀 남양유업 욕설 파일

지난 4월 남양유업 직원의 욕설 음성파일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불거진 '갑(甲)-을(乙) 관계 논란'에서 물량 밀어내기 등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세부 사항 등이 속속 드러났다. 여기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는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 편의점업계 등으로 확산됐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도 경제 분야 전반에서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새 술은 새 부대에? MB맨들 잇단 퇴출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MB맨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대표적 인물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다.

포스코와 KT는 민영화된 지 이미 10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 및 사퇴 압박, 중도 퇴진의 수순을 밟고 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2일 사표를 제출했다. 정준양 회장은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등 정부의 자진사퇴 압박이 잇따르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

4 스파크 EV·SM3 Z.E.—전기차 본격 보급

2013년은 국내 전기차 보급의 원년으로 기록될 한 해였다. 한국GM이 지난 10월 스파크 EV를 출시한 데 이어 르노삼성이 11월에 SM3 Z.E. 1호차를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2011년 12월에 기아차가 레이 EV를 출시한 바 있으나 정부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 보급에 그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보급은 올해가 시작이다.

5 대형마트 일요일 월 2회 휴무 의무화

개정된 유통산업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지난해 말부터 월 2회씩 일요일에 강제 휴무를 담했다. 또 신규 점포를 낼 때는 지역 상인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일요일 매출은 평일 매출의 두 배 이상으로 해당 업체들의 타격은 예상 외로 컸다.

6 추신수 몸값 초대박 류현진 신인 돌풍

추추 트레인' 추신수(31·텍사스 레인저스)와 '괴물' 류현진(26·LA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야구 역사를 새로 썼다.

추신수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몸값인 7년 총액 1억3000만 달러를 받고 텍사스와 계약했다. 텍사스는 추신수를 영입하면서 창단 후 첫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지난해 말 다저스에 입단한 류현진은 정규리그에서 192이닝을 던져 14승8패, 평균자책점 3.00 탈삼진 154개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신인 중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평균자책점과 다승은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다.

7 안철수 신당' 창당 선언—지지율 2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부상했다.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는 요즘 대전, 부산, 광주 등을 돌며 세몰이 중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치 정국에 실망한 국민은 벌써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37.9%인 새누리당에 이어 2위로 27.3%를 기록했다. 민주당(12.1%)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이다.

8 돌아온 '가왕'—중년들 심장도 '바운스 바운스'

'가왕' 조용필의 신드롬은 올해 대중문화계가 얻은 가장 큰 소득이다. 4월 10년 만에 발표한 19집 수록곡 '헬로'와 '바운스'는 중견 가수의 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고,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의 영광은 조용필에게 안겼다.

음반 매장에는 조용필의 앨범을 사기 위해 팬들이 길게 줄지어 서는 풍경이 오랜만에 재현됐다.

9 美 연준, 내년 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 결정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올해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8일(현지시간) 현행 월 850억 달러인 3차 양적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단기 기준금리를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하는 제로금리 정책은 앞으로도 최소 2년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10 금 현물 거래소 내년 3월 24일 개장 확정

내년 국내시장에 공식적인 금 현물 거래소가 등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연간 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금 현물 시장을 내년 3월 24일 개장한다. 증권 선물사, 한국조폐공사, 금융투자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금 현물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한국조폐공사의 마크가 각인된 금만 유통될 수 있다.

메트로신문이 뽑은 2013 대한민국 10대 상품

"소비자는 상품을 사기 전에 한번 평가하고 사용하면서 한번 더 평가한다" Key-Needs법 창시자로 유명한 우메자와 노부요시는 히트상품을 만드는 비결로 이렇게 강조한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예외없이 두번의 평가에서 합격점을 얻었다면 재구매에서 히트상품으로 이어지는 것은 순조롭다는 설명이다. 즉 소비자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높이려면 미충족의 강한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위해 매력적인 상품개발이 필수다. 메트로신문은 올해 '히트상품'으로 이름을 떨친 10대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 NHN '라인'
전세계 이용자 순식간에 3억명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올해 말 전 세계 이용자 3억 명을 돌파했다.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사진) 의장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만든 라인은 일본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 70%를 웃도는 반응 속에 라인 주식회사를 별도로 단생시키기도 했다.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자 2억 명에서 3억 명 돌파는 4개월이 걸리는 등 이용자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중이다.

■ 삼성전자 '갤럭시S4'
최단기 한달만에 1000만대 판매

삼성전자는 올해 4월 26일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S4'를 야심차게 선보였다. 갤럭시S4는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000만 대를 돌파하며,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상 최단기간 1000만대 돌파 기록을 세웠다.

갤럭시S4의 인기 비결은 차별화된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는 점에 있다. 우선 기존 모델과 달리 눈동자를 인식해 영상의 재생 및 멈춤 기능이 작동되는 '스마트 포즈' 기능과 손동작을 이용해 화면의 텍스트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 스크롤' 기능이 주목받았다.

■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1순위 청약자만 2만6144명 몰려

롯데건설이 지난 11월 부산에서 공급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2013년 신규 분양 아파트 중 가장 많은 청약 1순위자의 선택을 받았다. 1순위에서만 무려 2만6144명이 몰리며, 평균 45대 1, 최고 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판교,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데다, 최근 들어 부산 분양 시장이 급속히 냉각됐던 터라 이번 '사직롯데캐슬 더 클래식'의 성공이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 폭스바겐 신형 골프
7월 국내 시판… 벌써 3662대 팔려

올해 7월 국내 시판에 들어간 폭스바겐의 신형 골프는 '수입차 대중화'의 상징적인 존재다. 골프는 올해 11월까지 5645대가 팔렸으며, 신형 골프 출시 이후 3662대가 팔렸다.

또한 올해 새롭게 출시된 모델 중 유일하게 수입차 판매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단일 모델 7위). 수입차 판매 상위권에 랭크된 BMW 5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판매의 상당수가 법인 수요인 반면, 골프는 거의 대부분 개인 구매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IBK꽃보다청춘통장
해외여행 관심 많은 노년층 특화

IBK기업은행이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은퇴 노년층에 특화된 'IBK꽃보다청춘통장'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월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만기 3년 적립식과 거치식 예금의 금리는 우대금리(최고 연 0.2%p)를 포함해 각각 최고 연 2.7%, 연 2.65%다.

■ 단열용 에어캡 '뽁뽁이'
이른 한파·전기요금 인상에 열풍

한반도의 급격한 기후변화와 웰빙 열풍. 여기에 장기간 계속된 불황과 치솟은 전기요금 등이 경제 시장까지 맞물리면서 관련 제품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최근 온·오프마켓에서 가장 인기를 끈 제품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단열용 에어캡, 일명 '뽁뽁이'다.

이 제품은 기습 한파가 몰아닥친 11월에 한 온라인몰에서 무려 1억원어치나 판매됐다.

■ 개인용 커피메이커
1인가구 소형 가전 중 판매 '으뜸'

1인가구가 늘면서 개인 취향의 소형 가전제품의 판매가 온·오프라인에서 급증했다.

특히 커피 열풍과 맞물려 개인용 커피메이커의 매출이 상상 외의 호조를 보였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에서는 올해 판매 매출 순위 15위권에 무려 3개의 커피메이커 제품이 자리를 잡았다.

이 제품은 지난해보다 18.7% 상승한 17억2800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 CC크림
"BB크림 비켜"… 올 100만개 판 곳도

2013년 국내 화장품 시장을 주도한 제품은 단연 'CC크림'이었다.

CC크림은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시넬이 출시하며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올해는 백화점 브랜드뿐 아니라 브랜드숍까지 잇따라 선보이며 'BB크림'의 아성에도 도전장을 냈다. 실제로 바닐라코의 '잇 래디언트 CC크림'은 출시 83일만에 10만 개가 팔리는 기염을 토했고, 더페이스샵은 올해 누적 판매수량만 1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 휘닉스파크
평창 동계올림픽 10개 종목 개최 예정

휘닉스파크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산악 휴양지로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워터파크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프리스타일 스키 등 10개 종목을 개최하게 돼 현재 각실 리모델링, 시설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키·스노우보드 크로스 경기 코스, '휘닉스파크배 스키·스노우보드 크로스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1일 국내 스키장 중 최초로 개장하며 스키시즌을 알리기도 했다.

■ KB국민 훈·민·정·음 카드
카드색깔 '컬러풀' 할인혜택 '원더풀'

KB국민카드는 한글 상품명과 전통 색상인 오방색을 적용한 'KB국민 훈·민·정·음 카드'를 올해 12월 출시했다. 훈카드(흑색)는 학원 10%, 레저·피트니스 5%, 약국 최대 10% 할인을, 민카드(황색)는 대형마트 10%, 편의점 5%, 이동통신요금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카드(적색)는 인터넷쇼핑몰·홈쇼핑 10%, 미용업종 5%, 백화점·면세점 최대 10% 할인, 음카드(청색)는 커피 30%, 영화·공연·소셜커머스 5%, 골프·KB투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다.

현대파텍스를 소개합니다

가끔 도로를 주행하다 어른바 '구형 그랜저' 엑셀 과 같은 자동차 박물관에서나 만날 수 있는 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문득 드는 생각은 '저 차 주인은 부품을 어디서 구할까'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올드카 오너들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파텍스'라는 곳에서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고 있었다.

현대파텍스는 생산이 중단된 자동차의 AS용 차체 보디 부품을 적기에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을 위해 2005년 11월 서산지방산업 단지 6만평 부지에 프레스→차체→도장→포장에 걸친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충남 서산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파텍스 공장 전경. /현대파텍스 제공

'현대·기아차' 단종됐어도 AS는 계속된다

충남 서산지방산단 현대기아차 단산차 전용 부품공장
이윤보다 고객만족 목표… 친환경 근무환경·복지 자랑

◆ 일류 자동차 메이커들의 상징

과거 현대와 기아차는 생산 중단된 소량 다품종의 AS용 프레스 부품을 소규모 자체 조립업체로 운반, 차체로 조립한 후 다시 도장전문업체로 이송해서 도장 및 포장을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부품을 구입하는 데 부품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능력에 도달한 선진 일류 메이커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20년 전부터 생산 중단된 전용 부품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토요토미-키코라는 합작회사에서, 미쓰비시는 미쓰비시 협동조합의 EWL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소량 다품종의 AS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가의 전문 설비와 거대한 공장, 그룹의 우수한 인력을 직접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대파텍스의 설립 배경이 이윤 추구가 아닌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이었기에 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양산 설비로 생산 중단 부품을 1개씩 만들 경우 부품 1장당 최소 100만원이 넘는 가공비가 들어가지만 일관생산체제의 현대파텍스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개선된 품질의 부품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현대차그룹 전산 시스템 연계

현재 국내에만 1400만여 대, 전 세계를 합치면 4000만여 대의 현대·기아차가 운행되고 있다. 현대파텍스는 이들 중 단산된 차종의 보디 제품, 예를 들어 도어-루프-트렁크리드-테일게이트-펜더 등의 프레스 가공 부품 및 조립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파텍스 직원이 AS에 사용될 자동차 도어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파텍스 공장 내부의 모습

20만7300㎡의 부지와 6만1830㎡의 공장 건물에 3개의 5단 프레스라인과 자동차체 조립라인, 최신 전착 도장설비 및 부식을 방지하는 압축 포장설비를 갖춘 도 포장라인, 부품 생산용 금형보관장, 조립지구장, 금형가공기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프레스 가공부터 차체 조립, 전착 도장, 포장 공정까지 일관생산체제로 낭비 요소 없이 신속하게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전산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AS 고객의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계획 생산을 하고 있어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가장 오래된 금형은 20년 전 생산한 구형 프라이드이며 아반떼XD, 리오, 쏘렌토, 쏘나타, 엑쿠스 등 71개 차종의 약 4500벌의 금형을 보유하고 있다.

◆ 안전 제일과 자기 개발 지원

현대파텍스는 이를 위해 모든 설비에 안전 우선 장치를 구비하고 공장설비 레이아웃을 친환경적으로 구성,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근로자 전용 복지관과 체력단련실, 다목적 구기장 등 직원 복지시설에도 정성을 들였다.

또 교육과 병행하는 근로로 직원의 근무 효율을 높이고 도전 정신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동차 산업의 미래 주역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많은 국내외 기업은 튼튼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신차를 만들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쉽게 고장 나지 않는 탓에 AS 부품사업의 수익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현대파텍스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수에게 많이 팔아야 하는 기본적인 상행위 때문에 공장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고객 만족'을 위해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20~30년 넘게 자동차를 오래 탈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중단 차량 부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지속적으로 부품을 생산했기 때문이었다.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은 자동차를 재구입할 때 다시 해당 브랜드를 찾아 오히려 수익이 더 오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훈훈한' 현대파텍스 이웃돕기 솔선수범

현대파텍스는 대기업 계열사지만 지역 기업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매 분기 고곤 독거노인 가구를 찾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파텍스 직원들이 지역 내 독거노인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O앨범 100만장 판매 돌파 축하합니다!

저희 엑소의 중국팬들은 앨범 판매량 100만장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팬들은 아이들에게 엑소의 건강하고 활기찬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이 아이들이 엑소처럼 꿈과 희망을 멋지게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엑소의 모든 발걸음을 중국팬들이 항상 응원합니다!'

‘명품 타이요리’ 새해 출발

쉐라톤 인천 호텔 1월 10일부터 열흘간 - 2월말까지 ‘메트로 윈터 패키지’

쉐라톤 인천 호텔은 내년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뷔페 레스토랑 '피스트'에서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타이 요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이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방콕의 유명한 세코인 웨스틴 그랜드 수쿰빗 방콕의 두싯토사왓 셰프팀이 초청돼 팟타이 라이브 스테이션, 타이식 그릴 구이와 샐러드, 코코넛 밀크가 첨가된 디저트 등 4가지 스타일의 깊고 풍부한 타이요리를 제공한다.

가격은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해 점심은 평일 5만2000원, 주말 6만2000원이며 저녁은 평일 6만2000원, 주말 6만9000원이다.

한편 쉐라톤 인천 호텔은 새해를 맞이해 메트로신문 독자들을 위한 '메트로 윈터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디럭스룸에서의 1박, 피스트에서의 2인 조식이 제공되며 내년 1월 6일까지 예약한 후 2월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해맞이 패션, 폼나게 입자

레이어드+소품 포인트

갑오년 새해를 맞아 해돋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이른 아침 추위와 맞서야 하는 일출 여행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보온'이다. 패션 전문가들은 "무조건 두꺼운 옷을 껴입기보다는 기온 변화에 대비한 레이어드 스타일에 다양한 소품으로 스타일에 포인트를 줘라"고 조언한다.

해돋이 여행 시에는 다운 재킷이나 열답이를 입는 등 계담 스스로 열을 내는 발열 기능 소재로 보온성이 강화된 제품이 적합하다.

상의는 날씨 변화에 맞춰 입고 벗기 간편한 실업 티셔츠나 카디건을, 하의는 발열 내의나 기모 소재가 적용된 팬츠를 입으면 체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부에 자주 노출되기 쉬운 손과 귀, 머리는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 소품으로 감싸준다. 이런 액세서리는 잘 활용하면 보온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동시에 만족시킨다. /서지원기자

크레용팝 “빠빠빠! 연말연시엔 절주해”

파랑새포럼 절주 홍보대사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공개

파랑새포럼(사무국: 대한보건협회)이 절주 홍보대사인 걸그룹 크레용팝의 절주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파랑새포럼은 보건복지부 파랑새플랜 2010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정부, 시민단체·학계, 문제 전문가·치료상담 단체 등 20개 단체가 절주와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절주송은 크레용팝의 인기곡 '빠빠빠'를 개사한 것으로 잘못된 음주 습관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폐해 주범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크레용팝과 대학생 절주 동아리가 함께한 절주송 플래시몹을 배경으로 최근 인기를 끈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의 GTA시리즈 패러디 영상이 더해졌다. 술을 구입한 청년이 편의점 주인에게 받은 'GTA절주 안전하게 귀가하기 크레용팝 리미티드 에디션'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통해 공공장소 음주가 가져오는 각종 폐해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파랑새포럼은 앞으로 절주송 음원과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배포해 음주 폐해 예방 활동을 일반에 홍보할 계획이다.

파랑새포럼 관계자는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지금 크레용팝의 절주송이 공공장소 음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용팝은 지난 11월 절주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절주송 뮤직비디오는 유튜브(www.youtube.com/watch?v=Uvdi-DFhpO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초등 필수 어플 꾸리미’ 증정

천재교육은 2014학년도 1학기 우등생전과를 사는 학생들에게 '초등 필수 어플 꾸리미'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증정한다.

초등 필수 어플 꾸리미는 수학연습·영어 단어·한자 공부·세계문화유산 등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앱으로 구성됐다. 우등생전과 표지와 책 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T스토어에서 앱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스무디 자퍼’ 2013 최고 제품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의 '스무디 자퍼'가 2013년 타파웨어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

커버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3개의 칼날이 1.5초 동안 288번의 칼질 효과를 내 각종 과일과 채소 등을 손쉽게 다질 수 있는 수동 믹서기다. 전기를 쓰지 않는 친환경 제품으로 칼날을 휘스크로 갈아 끼우면 달걀 크림 반죽에 사용할 수 있다.

말띠 손님 냉면쿠폰·상품권 ‘새해선물’

강강술래, 1월 5일까지 설 선물세트 온라인·전화 예약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1월 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ma11.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3% 할인 판매하며 미리 주문 시 5% 추가 할인 혜택도 준다.

보양식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선물세트(900㎖, 5팩·15인분)는 3만80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3200원, 아토피 임원인 방부제를 뺀 웰빙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선물세트(6봉)는 2만63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갈빗살을 사용한 철판수떡갈비세트(5박스, 1.08kg)는 4만2200원,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세트(3박스, 1.08kg)는 2만63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8kg)는 5만7000원, 한우불고기2호(3.6kg) 11만4000원, 술래양념1호(16대) 7만6000원에 판매한다. 인기 메뉴로 구성된 술래실속(술래16대+한우불고기 1.8kg)은 12만3500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종 2.4kg)는 13만3000원에 제공한다.

말띠 해를 맞이 청담과 사흥점은 1월 15일, 산림과 늘봄농원점은 1월 31일까지 말띠 고객에게 냉면쿠폰(2매)을 증정한다. 삼계점은 2월말까지 말띠 고객이 구이 메뉴를 시키면 상품권(5000원권) 1매를 준다(사용 기간 매장별 문의).

쇼핑몰에서도 1월 1일부터 6일까지 흑임자너비아니(2박스)와 한우떡갈비(1박스)로 구성된 '말단리자세트'를 40% 할인된 2만8300원에 판매한다. /황재용기자

그랜드힐튼서울 태교 패키지

그랜드 힐튼 서울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베이비 베이비 태교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그제큐티브룸에서 투숙하며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의 조식과 해피아워, 비타민 섭취를 위한 생과일 주스 2잔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뷔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탈무드 태교 동화, 블루독베이비 배냇저고리 등 다양한 임신·출산용품을 제공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문의 02)2287-8400

서울의료원 사랑나눔 행사

서울의료원 후원회인 다사랑회가 지난 26일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동북권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강북구 번2동 오패산을 시작으로 중랑구 신내1동 사우개마을, 중랑구 면목3·8동 재개발 지역까지 총 300여 가구에 연탄 6000장, 쌀 110포, 구급함 110세트 등을 전달했다. 다사랑회는 지난 2004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3월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해 법인으로 새출발했다. 문의 02)2276-7070

2011년도 건전음주를 위한 광고 공모전 수상작 (대상)

2014년에도 절주하는 당신이 챔피언 입니다

많이 마신다고 해서 최고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량에 맞춰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술자리 문화의 선두주자 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보건협회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내 손안의 '풋볼데이'도 인기 강슛~

PC 이어 모바일 버전 서비스
손흥민 포함 5만명 데이터화
4일까지 1만 GP 제공 이벤트

NHN엔터테인먼트가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야구9단'에 이어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풋볼데이'로 언니스 슛을 날렸다.

2011년 공개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도 이용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대표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자리 잡은 '야구9단'의 기획·개발팀이 이번에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풋볼데이'를 개발해 야구9단의 개발·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접목하며 축구 게임에서도 성공을 맛보고 있다.

◆실시간 게임 중계 시스템 등 호응

풋볼데이는 네이버 스포츠에서 서비스하는 축구 웹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기존 게임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카드컬렉션' 기능을 접목해 '실시간 게임 중계 시스템', 완성도 높은 선수 카드 등 제공, 우수한 게임성을 자랑하며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비공개 테스트를 거쳐 11월 24일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풋볼데이는 이용자들에게 높은 게임성을 인정받아 최초 클럽 창단자를 기준으로 게임 잔존율 60%를 상회(26일 기준)하고 만들어진 클럽 수만도 60만 개에 이른다.

평균 4만 명에 달하는 동시 접속자 수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둬 야구에 이어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역작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풋볼데이는 남다른 콘텐츠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국내 시뮬레이션 게임 최초로 분데스리가 라이선스를 확보한 게 그 예다.

바이엘 레버쿠젠 손흥민, VfL볼프스부르크 구자철, FSV 마인츠 05 박주호 등의 한국 선수를 게임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와의 계약으로 전 세계 46개 리그, 5만 명 이상의 선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내 팀 관리

지난 29일부터는 풋볼데이의 모바일 버전이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로써 내 팀의 경기 결과와 선수 관리를 위해 PC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선보이는 풋볼데이 모바일 서비스를 1.0 버전으로 설정하고 모바일 최적화와 웹 버전 수준의 퀄리티를 구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아 이용, 경기 일정, 경기 순위 확인 등의 최우선순위 기능과 팀 컬러 적용, 스쿼드 관리, 퍼스트 훈련 등 선수 관리에 있어 필수 기능을 먼저 적용했다.

내년 1분기에는 풋볼데이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실시간 게임 중계 시스템'과 '실시간 게임' 기능을 비롯해 1.0 버전에 적용되지 않은 모든 기능을 장착한 2.0 버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풋볼데이 이용자들은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 내에서 바로 즐길 수 있으며 PC에서 로그인해 게임을 즐기던 방법과 동일하게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다.

풋볼데이 총괄 PD 임상범 이사는 "풋볼데이는 기록이 아닌 선수와 공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인 만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즐기는 게임의 묘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실시간 게임 중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2.0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어 모바일에서도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강자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풋볼데이 모바일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모바일 기기로 풋볼데이를 접속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일 1만 게임머니(GP)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NHN엔터테인먼트의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 '풋볼데이'가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야구9단'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게임을 알리고 있는 전 KBS N 스포츠 아나운서. /NHN엔터 제공

'모두의마블' 신규 캐릭터 나나 추가

CJ E&M 넷마블은 모바일 캐주얼 보드게임 '모두의마블 for Kakao'에 신규 캐릭터의 행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신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규 캐릭터 '나나'는 보너스 게임 승리 및 인수비용 할인 등 보유 능력치가 무려 7개로 모두의마블 특유의 짜릿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나S카드' 맥스(MAX) 달성 시 획득가능한 신규 행운 아이템 '나나의 곰돌이'는 보유 지역의 통행료 지금 15% 상승시켜 게임의 박진감과 스릴감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넷마블은 이번 연말연시 업데이트를 기념해 30일부터 다음 1월 7일까지 30판만 하면 50다이아와 5만 골드를 지급하고 A카드 20개를 달성 시 행운 아이템을 하나 더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박성훈기자

위메이드 2014 성장 키워드는 글로벌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이끄는 기업 중 하나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주요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내년 청사진을 공개했다.

30일 위메이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주요 온라인게임을 중국에 우선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북미 시장에 선보인 '윈드러너(WIND RUNNER)' 페이스북 버전을 현지 이용자에 맞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글로벌 전략의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페이스북, 라인, 텐센트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현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펼쳐 나가고 이미 보유 중인 다수의 모바일게임과 개발 중인 신작을 최고 수준의 현지화를 거쳐 세계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PC 온라인 부문 역시 '천룡기'(중국명 '창천2')·'시런', '로스트사가'의 성공적인 중국 서비스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게임 신작도 국내는 물론 세계 게임 이용자에게 발 빠르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최저가 가격비교 방법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항공과 호텔을 통합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동일조건 상품 구매시 차액확인

※ 자세한 사항은 하나투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10돌 용감한형제 음원 첫 주자

가수 **임정희**가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용감한형제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신곡의 첫 스타트를 끊는다.

30일 공개된 '그렇게 당해놓고'는 용감한형제가 내년 데뷔 10주년을 맞아 매달 1곡씩 총 10곡을 발매할 음원의 첫 번째다. '그렇게 당해 놓고'는 농도 짙은 R&B 색깔이 가미된 미디엄 템포의 팝 곡으로 임정희의 보이스 컬러와 단출한 악기 구성이 어우러져 따뜻한 느낌을 준다. 앨범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다.

'빛나는 로맨스' 카메오 출연

방송인 **박경림**이 MBC 일일극 '빛나는 로맨스'에 목소리로 카메오 출연했다.

그는 [illegible]일 방송에서 어진이 출연한 라디오 방송 퀴즈쇼 DJ로 출연한다. 6년차 주부 빛나(이진)가 경품을 타기 위해 나선 라디오 퀴즈쇼의 진행자 역을 맡아 목소리만으로 열연을 펼쳤다.

화보서 명품 각선미 과시

배우 **차예련**이 명품 각선미를 과시했다.

차예련은 최근 패션 매거진 오보이의 신생간 화보 촬영에서 우월한 보디라인과 캐주얼한 매력을 선보였다. 화보 속 차예련은 세련된 도시녀에서 역동적이고 발랄한 매력으로 변신했고, 운동화에도 굴욕 없는 각선미를 드러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는 누드톤의 수수한 메이크업으로 고혹적인 눈빛을 드러냈다.

홍수아·기태영과 '한지붕'

배우 **정지윤**이 새 둥지를 틀었다.

소속사 제이스타즈 엔터테인먼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정지윤은 배우 기태영, 홍수아, 이현진, 한예원 등과 함께 한솥밥을 먹게 됐다. 그는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진궁그룹의 외동딸 한수지 역으로 열연했고, 영화 '공모자들'에서 실종된 여대생의 역을 맡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달 영화 '좋은 친구들'의 촬영에 들어간다.

꾸밈없는 음악… 깊어진 감성

3집 음반 음원 정상 어반자카파

초고속 성장세를 멈추지 않는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권순일 25, 박용인 25, 조현아 24)가 또 한 번 음악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발표한 3집 '03' 수록곡들은 떠들썩한 프로모션 없이 순수하게 이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의 관심만으로 음원차트 정상에 올랐다. 공연계에서는 보컬 그룹으로서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정규앨범은 성장의 기록

데뷔 앨범부터 전곡을 세 멤버가 직접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해온 이들에게 하나씩 늘어가는 정규앨범은 성장의 기록과 같다. 지난 앨범보다 배 이상의 작업 시간을 들인 3집에서는 한층 세련된 솔리이밍과 섬세고 깊어진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타이틀곡 '코끝에 겨울' 은 '니가 싫어' '같은 그리다'로 대중을 사로잡은 조현아의 감성 발라드다. 피아노와 목소리만으로 부드럽게 시작하는 내레티브는 점차 거세게 몰아치며 깊고 외로운 겨울의 애상을 짙게 물들인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다르다는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대의 마음에 대해 쓸쓸하지만 담담하게 담아낸 곡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웅장해지는 사운드가 가사에 녹아있는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연말콘서트 '메리 어반 자카파'에서 멤버들이 열창하고 있다.

> **100% 경험담 녹인 노랫말**
> **늘 듣기 좋은 뮤직만 좇아**
> **보컬 그룹 독보적 티켓파워**
> **투어 통해 자신감 생겼어요**

"큰 변화는 없어요.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졌고, 우리 음악도 한 살 더 먹은 것 말고는요. 일부러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은 늘 듣기 좋은 음악이죠. 같은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노래하려고 해요."

100%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노랫말은 어반자카파 음악의 큰 매력이다.

불면증으로 깨어있는 새벽의 무기력한 우울감을 날카로운 피아노 선율과 스트링 연주와 함께 담아낸 '우울'은 조현아가 이번 앨범에서 꼽는 최고의 노래다. 3개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극도로 우울했을 때 만든 곡이다.

리드미컬한 보사노바 리듬에 허스키한 목소리가 더해진 '좋을 주다'를 쓴 박용인은 "2013년에는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 속에서 받은 상처와 씩씩한 표현한 곡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엔딩신에 등장하는 김혜자씨의 춤추는 장면과 비슷한 감성이다"고 설명했다.

화려한 게스트, 무대장치 없다

공연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이들은 20~21일 코엑스 C홀을 시작으로 24~25일 대구 경북대, 27~29일 부산 센텀시티 소향시어터에서 공연을 마치고 31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

2시간30분 동안 펼쳐진 공연에는 화려한 게스트도 무대장치도 없었다. 오직 노래로만 진전한 감동을 선사했다. 500석 규모에서 단독 콘서트를 시작해 매회 규모를 키워가며 회당 4000~5000석을 매진시키는 대형 가수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 3~5월 12개 도시에서 20회 이상 진행한 첫 전국투어가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시작 전에는 부담과 걱정이 컸는데 거의 매주 공연을 하면서 무대 운영 방식, 컨디션 관리 노하우, 위기 대처 능력 등이 확실히 늘었죠. 기복이 심했고 스스로 어미쳐야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투어를 통해 진정한 프로의 길을 걷게 됐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순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tvN 월화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3

너를 만나,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매주 월,화 밤 9시 40분 tvN 방송 / 2014년 1월 13일 첫방송

김소연 | 성준 | 남궁민 | 왕지원

tvN | JS pictures

슈퍼주니어 패러디도 슈퍼급

신승훈 日 콘서트 5000명 기립박수

가수 신승훈(사진)이 3년9개월 만에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5000여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신승훈은 26일 도쿄 나카노 선프라자홀에서 더 신승훈 재팬 라이브 '2013 그레이트 웨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소속사 도로시컴퍼니가 30일 밝혔다. 2010년 3월 개최된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 이후 다시 일본 팬과 만난 신승훈은 완벽한 준비를 거쳐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공연 당일 전체 스태프 회의를 직접 진행한 데 이어 3시간이 넘는 풀 리허설을 하며 완벽을 기했다. 일본 스태프는 소속사를 통해 "3년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신승훈 씨의 섬세함은 여전하다. 공연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전했다.

신승훈은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아이 빌리브' 등 히트곡을 비롯해 '고토바니 데키나이' '러브 러브 러브' '스위트 메모리스' 등 3시간 동안 30여 곡을 불렀다. 앙코르곡 '마이 멜로디'를 부를 때는 관객 전원이 10분간 기립 박수를 보냈다.

신승훈은 일본 진출 1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현지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M타운 위크' 피날레 장식 6개 그룹 관객 8만명 동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겨울 음악 축제 'SM타운 위크'로 공연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다.

SM에 소속된 동방신기·슈퍼주니어(사진)·소녀시대·샤이니·에프엑스·엑소 등 6개 그룹은 지난 21~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릴레이 콘서트를 개최해 총 8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SM타운 라이브'라는 이름의 합동 공연 브랜드로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SM은 릴레이 공연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번 공연 기간에는 동방신기의 데뷔 10주년(12월 26일), 엑소의 음반 100만 장 판매 등 빅 이슈가 더해지며 가요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슈퍼주니어는 지난 28~29일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했다. 공연장 곳곳에서 깜짝 등장하는 노브닝 무대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최신 일본 싱글 무대, 히트곡 무대, 겨울 시즌송과 유닛들의 무대 등 다채로운 색깔의 28곡을 선사했다.

멤버들은 재치 넘치는 다양한 패러디로 감동과 웃음을 동시에 전했다. 동해·시원은 레게 스타일의 패바이가로 변신해 동해의 자작곡 '페야 톰', 희철은 필비 김연은 '말하자면' 슈퍼주니어-M 헨리와 조미는 '압구정 날라리' 무대를 선사했다.

신동과 은혁이 결성한 돼지두루말지지기는 발라드 '고백'으로 숨겨둔 가창력을, 려욱과 규현은 러우니막규오라는 이름으로 '죽일 놈'을 부르며 의외의 랩 실력을 선보였다. 성민은 눈판쯤 늘어놓아 예 맞춰 현대무용을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또 슈퍼주니어는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를 부르며 김건모·김장훈·임재범·성시경·박정현 등 15명을 모창해 놀라움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걸스데이 민아 …
걸스데이의 민아 … 파격적인 화보를 공개 … 시스루 레깅스 … 자세를 취한 소진의 사진을 게재 … 할 새 앨범의 수록될 화보 중 한 컷으로, 소속사는 "걸스데이의 성숙미를 보여줄 이번 앨범의 콘셉트를 엿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 그룹에 걸린 인어공주 스타일 /유순호기자

소시 '총리와 나' 촬영장 방문

소녀시대(사진)가 KBS2 월화극 '총리와 나' 촬영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들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또 뚜렷한 연기 변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윤아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연말에 바쁜 스케줄 속에서 공연과 드라마를 병행하고 있는 윤아에게 작지만 뜻깊은 힘을 주기 위해 응원하러 왔다"고 전했다. 한편 31일 예정된 '총리와 나' 8회는 '2013 KBS 연기대상'으로 결방된다. /정은비기자

에일리 '노래가 늘었어'로 컴백

휘성과 또 손잡고 다음달 6일 싱글 발표

누드사진 유출로 힘든 시기를 보낸 에일리(사진)가 신곡 활동으로 휘가를 정면 돌파한다.

에일리는 다음달 6일 휘성과 손잡고 디지털 싱글 '노래가 늘었어'를 발표한다. 휘성의 진두지휘 아래 만들어진 '헤븐'으로 지난해 최고의 여가수로 급부상한 에일리가 1년 만에 휘성과 손잡고 또다시 흥행몰이에 나선다.

'노래가 늘었어'는 휘성이 프로듀싱과 작사를 맡고 문하가 작곡한 곡이다. 웅장한 편곡과 에일리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록발라드다. 에일리 특유의 호소력 짙은 감성 보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에일리와 휘성은 '헤븐'으로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주를 이루던 음원차트에서 신인 여자 솔로 가수임에도 3개월간 음원차트 상위권에 랭크됐으며, 그해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다.

한편 에일리는 디지털 싱글 '노래가 늘었어' 발표에 앞서 다음달 4일 각종 음악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한다. /김상범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global

metro HongKong

院開生日會料1月1出

metro France

Timbres, Smic, facture EDF, prix de cigarettes : ce qui augmente (et ce qui baisse) le 1er janvier 2014

새해 담뱃값 오르고 영화관람료 인하

2014년부터 프랑스의 일부 공공 서비스 및 물품 가격이 인상된다.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 및 서비스는 우표, 담배,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등이다.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은 7유로(약 1만1000원)로 오른다. 전기요금은 5% 이상 인상된다. 반면 은행 수수료, 영화 관람료, 열차요금은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프랑스 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metro Brazil

Tolerância zero prisões por emb

음주운전 구속, 법 개정 후 9배나 증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브라질 정부가 도입한 '제로 세카(Lei Seca)' 제도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브라질 남동부에 위치한 벨루오리존치시에서는 2013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건수가 780%나 증가했다. 총 1156명의 운전자가 구속돼 전년도의 138명에 비해 9배나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남성이 93%로 압도적이었으며 연령으로는 26~35세가 가장 많았다.

30회 수술 끝 되찾은 미소

3년 전 '필리핀 인질사건' 때 턱에 총 맞고도 살아난 여성, 12시간 대수술 통해 하악 재건 성공

필리핀에서 발생한 '홍콩인 인질사건'의 생존자 이샤오링(易小玲·36)이 최근 대만에서 하악재건 수술을 통해 '잃어버린 얼굴'을 찾았다.

창겅(長庚)의원 성형전문의 웨이푸환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술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이샤오링은 병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다. 그는 "마침내 완전한 턱을 보게 됐다. 태어나서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수반도 이날 이샤오링에게 꽃다발과 카드를 보내 쾌유를 기원했다.

201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홍콩인 인질사건에서 이샤오링은 턱에 총을 맞아 턱관절이 부서지며 변형됐다. 그는 3년간 홍콩에서 30여 차례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종아리뼈에서 조직을 절제해 하악을 재건하는 수술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18일 대만에서 흉터 부위를 절제하고 티타늄으로 뼈대를 재건해 하악을 고정시키는 12시간의 대수술을 거쳐 비로소 미세재건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웨이푸환은 "이샤오링의 하악 수술은 실패한 적이 있고, 특히 피부 이식 실패로 하악이 감염돼 혈관을 찾기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결국 하악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동맥과 정맥을 찾아 끊어졌던 하악 두 부분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뒤에 9개의 치아를 이식하면 씹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흉터 제거 수술을 몇 번 더 하면 이샤오링은 원래 얼굴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샤오링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이샤오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마스크를 벗고 홍콩으로 돌아가 아들을 돌보고 싶다"고 말했다.

홍콩인 인질사건은 2010년 8월 23일 마닐라에서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총기를 들고 관광버스로 난입, 11시간 동안 홍콩 관광객 21명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홍콩인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2014년 10대 뉴스메이커

메트로 모스크바가 2014년 말의 해를 신나게 달굴 10대 뉴스메이커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리=조선미기자

◆ **록그룹 푸시 라이엇**=반푸틴 공연을 펼치다 2년 형을 선고받은 여성 록그룹 푸시 라이엇(사진). 최근 멤버 2명이 특별 사면된 뒤 푸틴 반대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다.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 세계인의 희망을 담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인물로 평가된다.

◆ **첼시 클린턴**=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외동딸인 첼시는 활발한 자선 활동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첼시는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의 패리스 힐턴 크세니야 솝차크**=조만간 솝차크를 러시아 국영방송인 제1채널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마두로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세계 최고 악당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비트코인 개발자 나카모토 사토시**=디지털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한 나카모토 사토시. 비트코인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2014년을 뜨겁게 달굴 뉴스메이커로 선정됐다.

◆ **프란체스코 교황**=프란체스코 교황은 2014년에도 인류를 보듬어 안고 교회를 희망과 신뢰의 축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러시아의 군사력 강화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면서 쇼이구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 **3D 총기 개발자 코디 윌슨**=3D프린터를 이용해 사제 총을 제작한 윌슨이 앞으로도 계속 무기를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 **브라질 축구스타 네이마르 다 실바**=네이마르는 2014 브라질월드컵을 빛낸 최고의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 亞 최고 축구선수"

독일 프로축구에서 맹활약한 손흥민(21·레버쿠젠·사진)이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아시아 축구 선수로 선정됐다.

스포츠 전문매체 ESPN에서 아시아 축구 담당 존 듀어든은 30일 '2013년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 1위로 손흥민을 꼽았다. 듀어든은 손흥민에 대해 "한국의 전설인 차범근의 뒤를 이어 레버쿠젠을 선택했다"고 소개하며 함부르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활약을 상세하게 전했다. 지난 시즌 함부르크 소속으로 12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올 시즌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정규리그 전반기에만 7골 2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유순호기자 sune@

'F1 황제' 슈마허 혼수상태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4·독일·사진)가 프랑스에서 스키를 타던 중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

30일 현지 매체들은 프랑스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슈마허가 혼수상태에 빠져 상태가 위험하다고 보도했다. 슈마허는 29일 프랑스 알프스의 메리벨 스키장에서 아들과 함께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벗어나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슈마허는 헬리콥터를 통해 주변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단결과 슈마허는 두개골에 외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F1에서 7차례나 종합 우승을 차지한 슈마허는 2006년 시즌이 끝나고 은퇴했다가 2010년 메르세데스팀을 통해 현역에 복귀해 지난해까지 드라이버로 활약했다. /장병호기자

신수 훤해진 '秋의환향'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30일 오전 가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FA 대박' 추신수 가족과 함께 입국… "성공비결은 위기 때마다 도운 아내의 내조"

메이저리그 입성 9년만에 초대형 잭팟을 터뜨린 추신수(31·텍사스 레인저스)가 돌아왔다.

추신수는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추신수는 "신시내티 레즈 이적 후 느꼈던 것만큼 2014 시즌이 기다려진다"며 "올해 신시내티에서처럼 야구한다면 텍사스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텍사스와 7년 1억3000만 달러에 계약한 추신수는 "가족이 그 지역에서 얼마큼 편안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실 여러 팀이 있었는데 우승에 도전할 수 있고 또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생각하다 보니 텍사스가 가장 적합했다. 표현은 안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텍사스가 있었다"고 소속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몸만 건강하다면 언제나 내 몫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추신수는 자신의 노력보다 아내의 내조와 가족의 힘을 성공비결로 꼽았다.

그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애가 3명인데 낳을 때까진 옆에서 지켜봤는데 태어난 후 바로 시합을 하러 가서 곁을 지켜주지 못 한 일"이라며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내조를 해줬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프고 아내의 내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새 시즌을 앞두고 그는 "나를 인정하고 영입해준 텍사스의 기대에 부응하며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추신수는 이번 시즌 154경기에 출전해 569타수 162안타, 타율 0.285와 21홈런, 54타점, 107득점, 출루율 0.423 등의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정용운기자 yaw@metroseoul.co.kr

추신수가 30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1년만의 복수? 30일 영국 스탬퍼드 브릿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리버풀의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아래)가 첼시의 게리 케이힐과 공을 다투다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수아레스는 지난 시즌 첼시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팔을 깨물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프로농구 전적 30일

신한은행	22	15	15	17	69
KDB생명	16	17	21	11	65

이현우의 베이스볼 카페

새해 토종 한국야구에 거는 기대

2013년 야구계의 가장 큰 사건을 꼽자면 메이저리거 류현진의 성공적인 데뷔와 추신수의 FA 계약이었다. 한국프로야구 선수 자격으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류현진은 LA 다저스의 든든한 3선발 투수로 14승, 방어율 3.00의 성적을 올렸다. 류현진이 등판하는 경기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다.

추신수도 FA 자격을 얻어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3000만 달러(1379억 원)에 계약했다.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최고액이자 한국야구의 힘이었다. 그러나 두 메이저리거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진 한국야구는 흥행이 주춤했다.

일본에서는 이대호와 오승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대호는 오릭스를 떠나 소프트뱅크와 20억 엔에 가까운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삼성의 5번 우승을 이끈 소방수 오승환은 2년 9억 엔의 특급대우를 받고 한신 수호신으로 변신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야구의 힘이 커졌다.

국내에서 삼성은 사상 첫 통합 3연패를 달성했다. 삼성은 90년대 말부터 육성시스템에 투자를 통해 체질을 바꾸는데 성공해 최강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다 최강을 자부했던 SK와 전통의 KIA 몰락도 눈에 띄었다. 신생 NC는 7위에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10구단 kt의 탄생도 중요한 변화였다. 10구단의 출범은 향후 한국프로야구 발전의 토대를 다질 것으로 기대 받았다. 그러나 선수 부족과 경기력 저하로 인한 흥행 악화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수로는 2년 연속 홈런왕과 MVP를 거머쥔 박병호가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박병호를 제외하고는 대형타자 기근에 허덕였고 15승 에이스 토종투수도 없었다.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FA 수요 폭발 덕택에 롯데 강민호, 한화 이용규와 정근우는 대박을 터트렸다.

2014년 한국야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해외파 바람속에서 흥행에 불을 지펴야 한다. 외국인 타자 도입으로 공격야구가 주목 받고 있다. 삼성은 통합 4연패에 도전한다. 광주에는 KIA 챔피언스 필드 시대가 열리면서 안팎이 달라진다. 과연 2014 한국야구는 어떤 빅뉴스를 전해줄까. /OSEN 야구전문기자